

독도 기념관

Tokdo Memorial

유 건 / (주)시·상건축

by Yu K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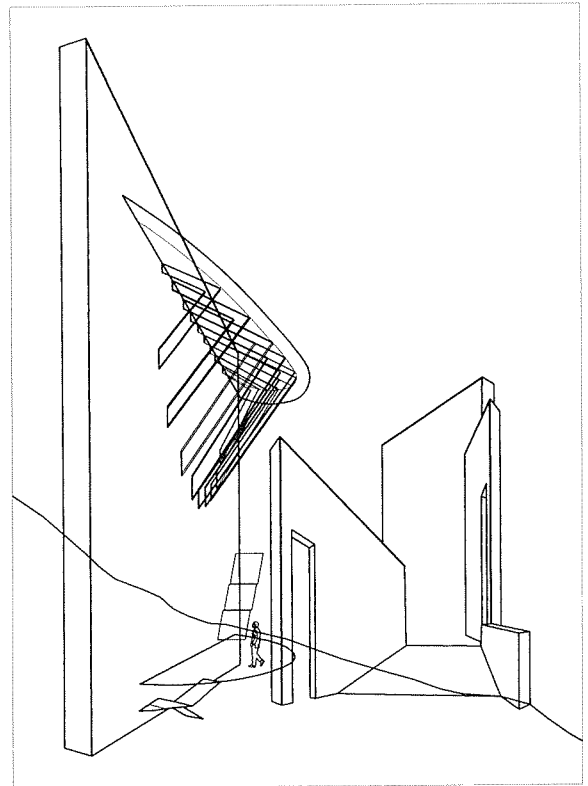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과 같은 전시시설의 경우, 사업성을 추구하는 건물의 종류가 아니므로 경제성, 시공성 등 건축가의 입장에서 타협하기 만만치 않은 어려움들을 작품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극복하기가 비교적 용이한 건물 유형이므로 한 번쯤은 설계하고 싶은 매력적인 성격의 건물이다.

설계실적의 중요도에 대한 인지가 낮은 상태에서 설계 사무소를 시작한 후 누군가의 소개로 몇 년 전에 개인 박물관 설계문의를 받은 적이 있었다. 전시시설 설계실적을 전화로 문의한 후, 없다는 대답에 알았다는 말과 함께 그것으로 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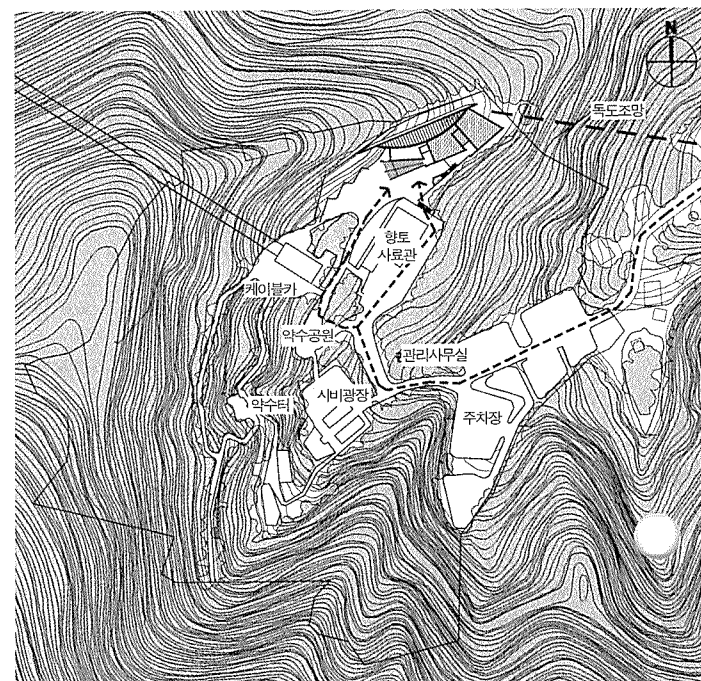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음에 대한 아쉬움이 없어질 즈음, 해외 출장 중에 사무소의 동료로부터 호텔 방으로 전화가 왔다. 어떤 재단에서 선배 건축인으로부터 추천받았다고 하면서 일주일 내에 기공식에 전시할 수 있도록 투시도를 그려서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고 한다. 다시 주어진 기회에 몸은 멀리 있으니 안타깝기만 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독도기념관 설계위임을 받고, 설계대상 부지 방문 후에 구상한다는 개인적인 원칙도 무시한 채, 어떠한 배경으로, 어떠한 이유나 목적으로 건물을 짓고자 하는지에 대한 사전지식도 없이, 대지 형태도 모르는 채로 그야말로 투시도만 대충 만들어 들고 울릉도에서 거행되는 기공식에 참석하였다.

현장 방문길에 듣기로는 우리 나라 역사관련 자료를 오랜 기간동안 사재를 들여 수집해 온 서지학자 이종학 선생께서 따로 독도의 영토와 관련된 역사자료를 중심으로 울릉도에 기념관을 건립하여 일반에게 자료를 공개할 목적으로 후원자를 물색중, 삼성 문화재단 사업의 일환으로 결정되어 재단에서 건물을 지어 기부 체납하기로 했다 한다. 그래서 울릉군에서 관광객의 방문이 가장 잦은 도동 약수공원내의 독도가 보이는 위치에 신축부지를 제공하기로 결정된지 약 일년만에 설계자의 결정과 함께 광복절을 기공식 일자로 정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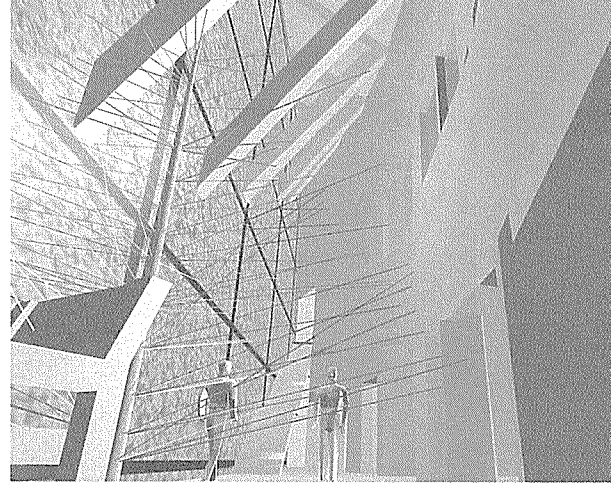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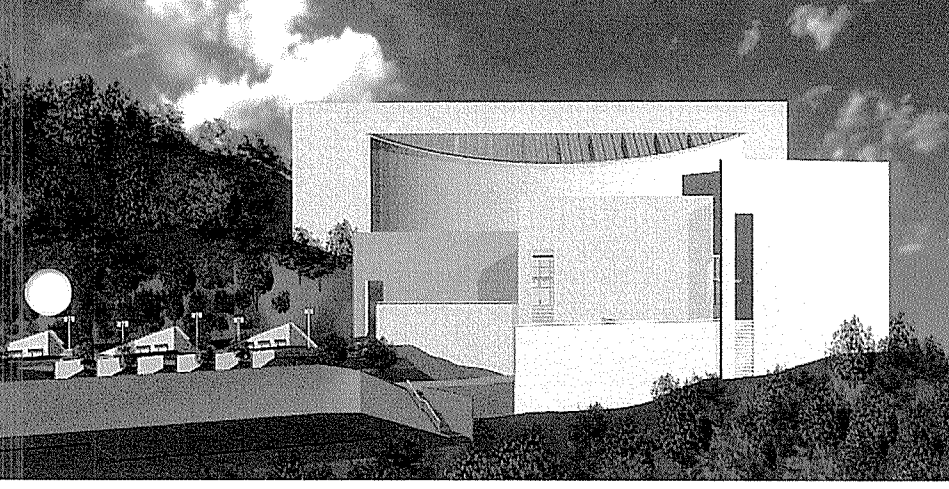
행사가 끝난 후 찬찬히 둘러본 대지는 그야말로 도전 그 자체로 느껴졌다. 산등성이 자락에 정지작업을 한 지하1층, 지상 2층 연면적 사오백평 건물이 들어설 약 40평 남짓한 대지. 경사도 40도의 가파른 풍화토. 육지에서나 겨우 가능한 토



구성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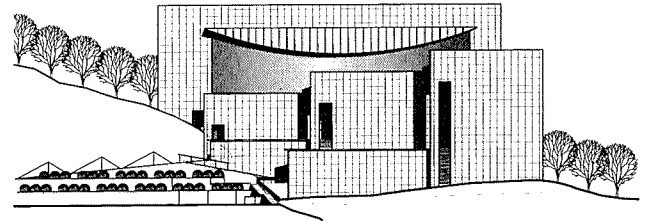


공사비도 고려되지 않은 예산. 기존의 향토 사료관과 신축예정인 삭도 시설 부지 사이로 겨우 확보된 폭 6미터의 진입로. 방향을 가르켜 주며 2층, 3층에서는 보일 거리는 지상에서 육안으로는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 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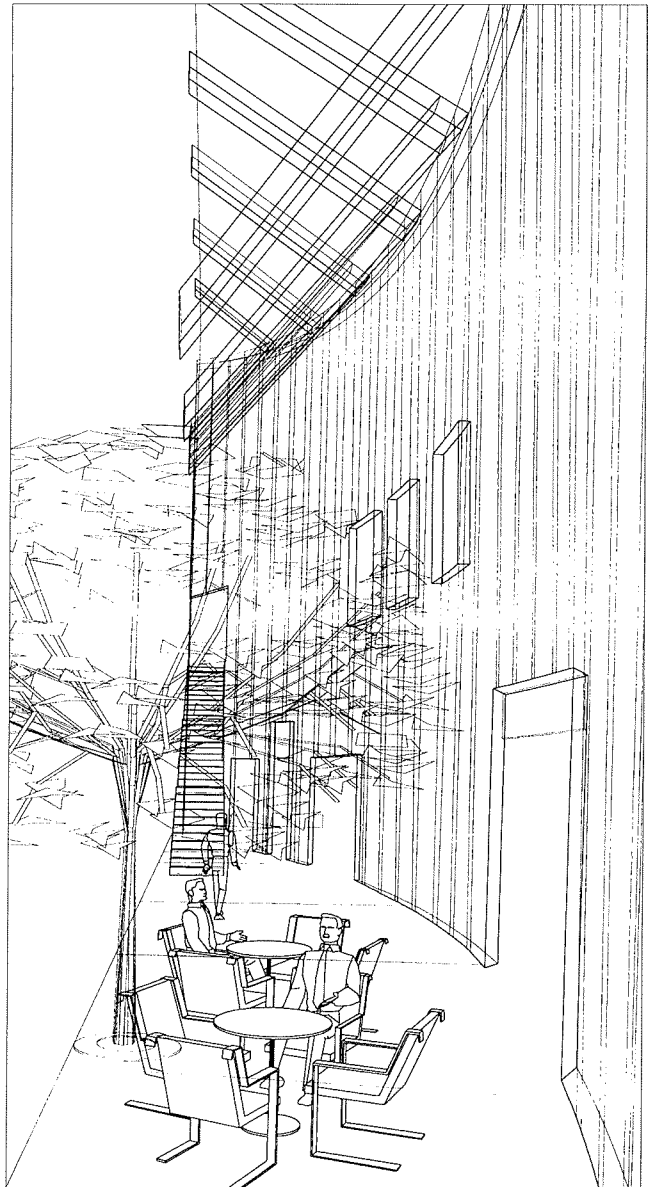
박물관으로는 비교적 소규모 건물이므로 프로그램의 전개나 그에 따른 기능의 해결은 비록 대지조건이 열악하지만 큰 무리없는 진행이 가능하리라 판단되었으며, 오히려 일본과의 영토분쟁 관계를 고려하여 '독도 기념관' 이라는 이름 자체가 내포하는 시사성과 상징성이 표현되도록, 독도의 영토성과 역사성이 적절히 형태 및 공간 구성에 반영되어 건물의 이름에 부합될 만한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건물의 형태 구상과 공간의 의미 부여는 독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징 대상 요소를 채택하는 방법으로 시작하였다. 제도판 위에서 실질적인 설계에 착수하기 이전에 나열하여 놓은 의미의 형상화 대상 리스트에 가장 먼저 적혀 있는 것은 독도라는 말의 이해였다. 나름대로 해석하기에는 '국토의 가장 동쪽으로서 망망대해에 홀로 우뚝 솟은 섬' 이라는 문자의 직설적인 풀이를 시작으로,

- 오래전부터 불려오던 독도의 또다른 이름은 '삼봉도'
-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동해의 일출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장소
- 물, 주민, 나무(국제법상 암초와 구별되어 섬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필요한 세가지 요소로서 물은 바위틈에서 나오며, 주민은 몇 년 전에 이주하신 분이 있으며, 나무는 열심히 심어놓고 살리도록 노력 중이다.)
- 부지의 위치는 오각형 형태의 섬인 울릉도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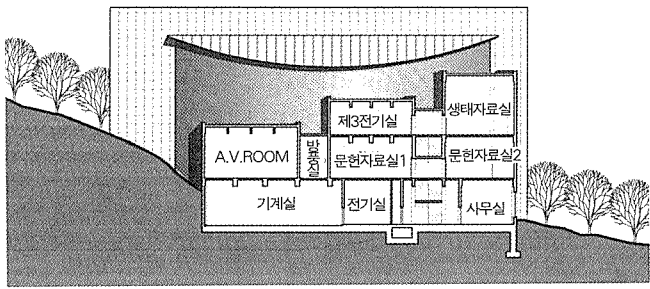
이상의 여러 가지 중에서 의미 표현의 요소로서 상징성도 강하며, 개인적으로 어필하는 것은 독도의 홀로독(獨)자였다. 일본의 끊임없는 집적거림에도 불구하고 곳곳하게 한국의 영토임을 과시할 의미, 바다 한 가운데 서있는 능능한 자태. 그 다음으로는 죽도가 아닌 삼봉도. 왜 삼봉도로 불리게 되었는지는 고사하고, 일본인들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은 우리끼리만 공유하는 이름이며 건축의 요소로도 활용하기 용이한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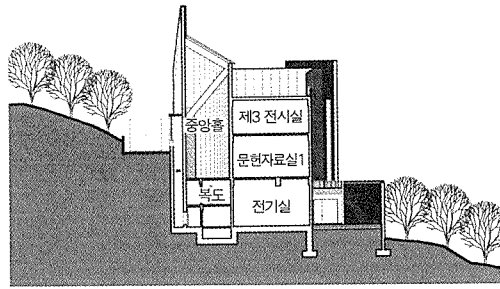
정면도



부분투시도(빛의 공간)



횡단면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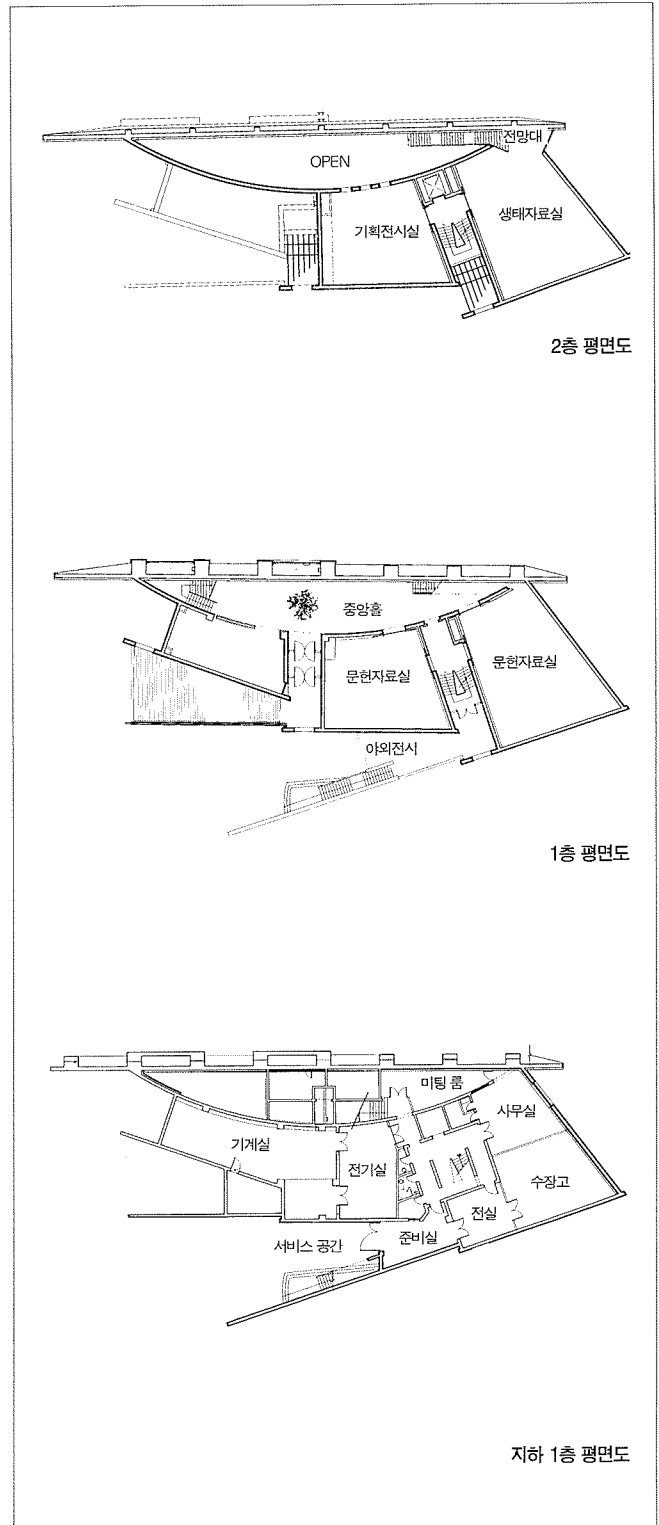
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동해와 일출이 형상화될 수 있다면 건물형태에의 의미부여와 공간의 상징성 진작에 결정적이라 생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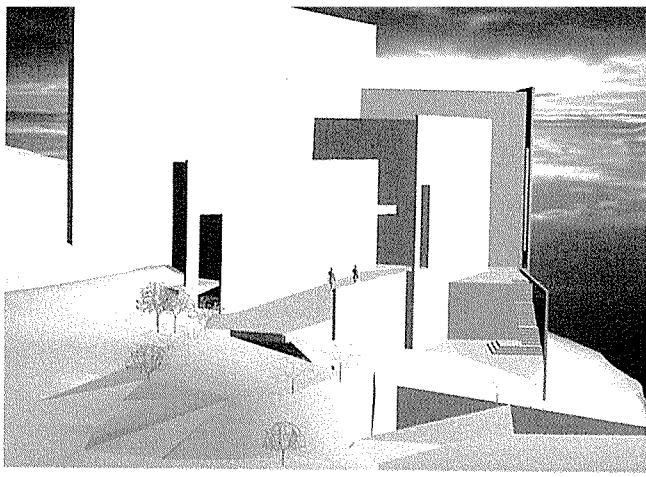
우선 '獨' 자를 의미하는 커다란 벽을 하나 설정하고 필요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절토의 흙막이 벽으로 활용하도록 계획한 후 동해바다에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의 공간을 디자인 하였다.

일출은 태양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형태인 원의 일부 분과 빛, 바탕이 되는 바다와 빛의 반사로 되어 있음을 그대로 공간의 형태로 형상화하여, 빛을 주제로한 중앙공간을 떠오르는 태양의 모습인 호의 형태로 평면을 계획하였고, 지붕 전체를 유리로 덮어 일출의 빛을 의미하도록 하였으며, 지붕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은 홀로 선 벽면에 반사되어 내부로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햇빛이 바다면에 반사되는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내부 공간의 설계상 중요한 이미지가 외부의 형태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건물전체에서 가장 주가 되는 Mass로 표현하였으며, 중심 공간에 면하여 삼봉도를 의미하는 세계의 실을 종속적인 관계의 별도 Mass로 구성하여 일반적이 아닌 오각형의 내각이 연상되도록 기하학적으로 배치하였다. 통상적으로 로비로부터 진입한 전시공간은 다음 전시공간으로 연결되도록 설계한다. 그러나 독도 박물관의 경우 각 전시실의 규모와 전시실 수가 작은 편이기도 하고 가급적 중앙공간을 여러 각도 및 높이에서 적극적으로 느끼도록 각 전시실과 주공간의 관계가 개별로 직접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공간의 형태가 세장하며 변화가 있는 경우, 보는 위치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는 점을 활용하여 1층과 2층, 중앙과 끝에서 느끼게 함으로써 공간경험의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도록 단일 공간을 일련의 Sequence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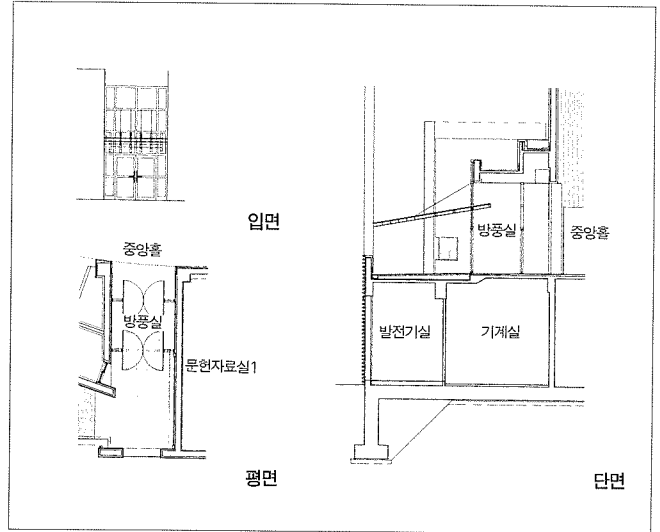
연초에 태풍주의보가 해제되기를 기다려 방학중인 딸애와 마감재료 협의차 울릉도에 갔다. 난공사임이 분명한 기부채납할 건물에 설계자 못지 않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는 삼성문화재단과 삼성건설의 예상 밖의 열의에 놀랐다. 또한 그날 현장회의에 참석한 울릉군청의 담당인 이충성 계장의 집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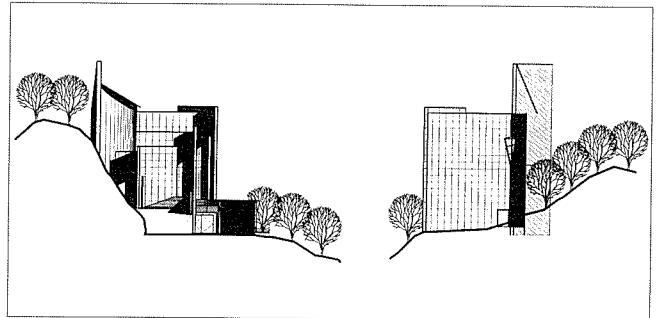


나름대로의 독도박물관 사랑에 다시 한 번 놀랐다. 그분들보다 독도 사랑이 덜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배말미와 1박 3일의 출장은 싫지만 준공전에 몇번 더 협의차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하는 분들이었다. 설계시에 적지않은 고려와 시간을 필요로했던 의미의 전달이 사용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잘 느껴지도록 울릉도에서 처음 먹어본 홍합밥도 다시 먹어볼 겸 이번 달에는 현장을 다시 찾을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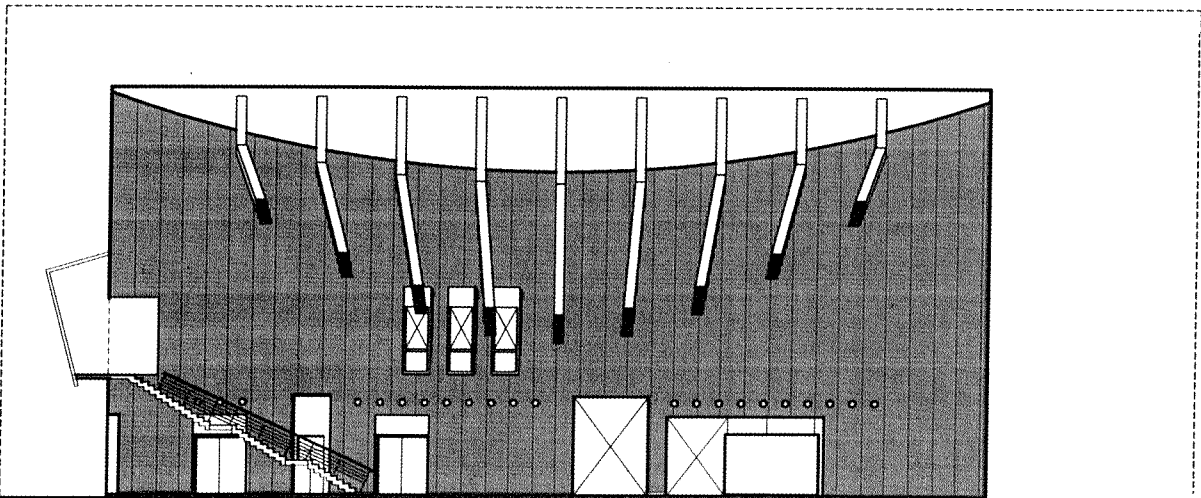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581-1외 2필지
 국토이용 도시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전시시설, 공사종별 신축
 구조 철근 콘크리트구조
 외부 마감 외벽 - 화강석 버너구이
 창호 - THK 24.3 라미네이트유리
 대지면적 8,068.00㎡(2,440.56평)
 건축면적 677.36㎡(204.90평)
 연 면 적 1,599.87㎡(483.95평)
 건 폐 율 8.40%, 용 적 륜 13.10%
 조경면적 972.59㎡(법정 10% - 806.80㎡)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설계담당 백수훈, 주정영, 이상신



주출입구 상세도



측면도



내부 홀 전개도